광주시교육청, 프랑스 몽펠리에와 교육교류 실시

중·고등학교 역사·미술·음악교사 등 11명

상호 교육·역사·문화 정보 공유하며 이해 넓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5일부터 5일간 최숙 창의융합교육원장을 단장으로 광주의 중,고등학교 역사, 음악, 미술, 정보, 외국어교사 등 11명이 프랑스 남부의 교육 도시인 몽펠리에를 방문하여 교육과정과 수업기술 공유를 주제로 교류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광주시교육청이 프랑스몽펠리에 교육청과 3년간 교육청, 교사, 학생의 분야 교육교류를 위한 협약(MOU)을 체결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방문은 광주와 프랑스 교사들이 서로 수업을 공개하고 수업기술과 교육과정에 대한 세미나를 열어 상호 간의 교육,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해를 높여 나가자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5일 밤늦게 현지에 도착한 광주의 교사들은 여독이 풀리기도 전인 이튿날 6일 오전에 장모네 고등학교에서 수업교류 활동을 진행하였다. 수업교류는 각 과목별로 프랑스 교사가 1시간 동안 수업을 한 후 한국 교사들이 프랑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광주 첨단고등학교 임광호 교사와 전남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최진호 교사는 각각 '1871년 프랑스 파리 & 1980년 대한민국 광주', '한국의 문화유산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역사수업을 실시하였다. 광주고등학교 김형주 교사와 장덕중학교 주지석 교사는 '엔트리'를 이용한 문제해결을 주제로 컴퓨터실에서 직접 코딩 수업을 한 후 참가 학생들에게 이수증을 발급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수완고등학교 김광옥 교사는 '한국 미술-프랑스에서 만남'을 주제로 한국 부채에 여백의 미를 활용하여 그림 그리기 수업을 하였으며, 금구중학교 임도화 교사는 프랑스 학생들과 함께 '아리랑'을 가야금과 서양악기로 합주하며, 노래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광산중학교 조윤호 교사는 영어수업 시간에 학부과정 비즈니스학생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류에 참여한 첨단고등학교 임광호 교사는 "지난 6월부터 5개월간 프랑스 몽펠리에 교육교류를 위해 방불 교사들이 광주와 프랑스의 역사, 문화 교류에 대해 고민하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상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프랑스 학생들에게 5.18. 민주화 운동을 직접 소개하면서 광주 역사교사로서 사명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업 후 많은 학생들이 한국 교사들의 친절한 설명에 감사함을 전하고 한국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자신들도 한국을 방문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광주를 방문한 경험이 있는 장모네 고등학교 가바농 교감은 "지난 번 광주의 대광여고를 방문했을 때 한국의 교실이 정말 활기차고 학생들이 교사를 존중하고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이번 교사교류를 통해 역사, 예술, 코딩 수업을 함께 해보니 프랑스 몽펠리에와 대한민국 광주의 교육이 좀 더 긴밀한 관계가 형성된 같아 뿌듯하다. 내년에도 더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과 몽펠리에교육청 간의 교류협약에 따라 올해 5월과 10월에 대광여고 학생 12명과 교원들이, 프랑스 장모네 고등학교 학생 12명과 교원들이 각각 몽펠리에와 광주를 방문하여 교육교류 활동을 한 바 있다.

오후 몽펠리에교육청을 방문한 광주 교사단은 프랑스의 교사와 장학사들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업기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숙 원장은 몽펠리에교육청과 학교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하다며 프랑스 몽펠리에 교육감 일행이 광주를 방문하도록 초청의 뜻을 전했고, 몽펠리에교육청 르-까르 장학국장은 베아트리스 질 몽펠리에 교육감 일행이 12월 4일 광주를 방문하도록 하겠다고 화답하였다.

6일 저녁에는 몽펠리에 현지에서 한국 알리기 축제인 '꼬레-디씨'의 개막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광주 금구중학교 임도화 교사는 광주 교사를 대표하여 몽펠리에 시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30분가량 가야금 연주를 곁들여 한국과 프랑스 노래로 공연을 하였다. 임 교사가 성금연류 가야금 산조를 연주하고 홍보가 중 '박타령'을 부르자 관객들은 큰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

7일 오전 최숙 원장 일행은 몽펠리에교육청 안내로 장물린 초등학교와 프레데릭 바질 중학교를 방문하여 프랑스의 코딩교육과 외국어 수업을 참관하며 의견을 교류했다.

극락초 학생들, 주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마련

광주극락초등학교는 11월 8일 학교 운동장 및 강당, 마을사랑방 통, 동아리실에서 '극락마을 축제'가 열렸다. 다른 학예회나 축제에서 볼 수 없었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전 구성원이 함께 지원해 주는 축제였다는 것이다.

교문에 걸린 플래카드, 환경을 생각하며 운영한 봉사단 등 학생들의 공모로 시작한 점은 다른 학예회에서 볼 수 없었던 점이었다.

1부 부스 운영도 다양해서 페이스페인팅, 캘리그래프(학부모), 시크릿 가든, 극락인권 지킴이, 과거로 가자 뽕, 솜사탕 만들기(교직원) 외 20개로 큰 시장을 연상케 했다. 한 학생은 "안 쓰는 물건을 나누어 가지며 어려운 이웃도 도울 수 있어서 기뻤습니다."하고 활짝 웃는다.

2부 재능한마당 공연으로는 난타 외 19가지로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마무리는 6학년 졸업공연이었다. '열세 번째 아이' 작품을 수업시간에 디자인하여 연극무대로 올려 많은 박수를 받았다. 이렇듯 수업에 배운 내용이 축제의 장으로 연결된 것이 참 이색적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운 것을 이렇게 이웃과 나누고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좋아요. 떡볶이, 어묵 드시러 오세요." 하며 학부모님들도 즐거워했다. 마을축제를 준비한 두 선생님은 모두가 즐거워하니 준비 지원이 힘들었지만 나름 보람있었다며 미소를 짓는다.

일동초, 도담도담 전통 탐험대 인사캠페인

전통 인사 방법인 '공수 인사하기' 익혀

일동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등굣길 정문 입구에서 인사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동초등학교의 3학년 2학기 교육과정 재구성 제1주제인 '도담도담 전통 탐험대' 총 38차시 중 18~19차시의 구현활동(각 반별 인사 5계명, 인사하기 4행시 짓기, 인사송, 캠페인 활동)으로 계획했다. 교실에서 옛날 전통과 오늘날 달라진 예절 생활을 알아보고 바람직한 예절 익히기와 전통 인사 방법인 공수 인사하기의 방법을 익혔으며 웃어른은 물론 친구들과 동생들, 선배들에 대한 인사 또한 중요함을 배워 실천활동으로 인사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입동의 차가운 날씨에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캠페인 구호를 열심히 외치며 예쁘게 인사하는 법을 알리고 인사송에 맞춰 율동까지 선보였다. 일동초 학생들 모두 바람직하게 인사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져본 의미 있는 캠페인이었다.

조인호 기자

2019 북구 교육복지 어울림 한마당 개최

학생, 학부모 등 350여 명 참여

북구 교육복지사협의회가 지난 9일 '2019 북구 교육복지 어울림 한마당'을 북구청소년수련관 공연장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흔들리며 피는 꽃들과 함께'를 주제로 지난 18년 첫 어울림 축제에 이어 올해도 북구지역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학교 학생,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협업하여 준비한 활동이다.

오치초 학생들의 기악합주 공연을 시작으로 난타, 사물놀이, 가야금, 칼림바 합주가 무대를 가득 메우는 한편, 방송댄스를 준비한 초, 중학생들은 서로의 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다.

광주동신여중의 뮤지컬 공연이 마지막을 장식한 가운데 서로를 응원하면서 행운을 가져가는 소소한 재미도 함께 마련되었다.

한편 스포츠마사지를 배워 봉사단으로 참여한 중학생들, 네일아트와 풍선아트를 배워 재능을 선보인 교육복지동아리가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특히, 오정초 학부모동아리에서 준비한 전래놀이 활동은 어울림 한마당의 취지를 실감하는 자리였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주관 운영하는 시민참여담당관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가족이 함께 배움의 장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하였다. 또한, 교육복지학교의 교육가족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축제의 장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